

청소년 필독 교양 도서

이-11) 키

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필독교양도서

세계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리화

책임교정: 최순란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世界名随笔选/ 金叶, 崔梨花编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ISBN 7-80698-775-4

I. 世... II. ①金... ②崔... III. 随笔—作品集—世界—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11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15335号

世界名随笔选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125 字数: 10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75-4 / I · 112 (民文)

版次: 2006年9月第1版

2006年9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9.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근년에 와서 갈수록 이체를 띠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동, 서방의 다
양한 소재와 개성있는 필체의 수필
을 엄선하여 애독자들에게 수필의
정체성과 수필의 특징을 폭넓게 리
해할수 있도록 한 수필선집.





《세계명수필선집》
《한국명수필선집》
《조선명수필선집》

머리글

근년에 와서 우리 조선족문단에는 문학장르의 하나인 수필이 이채를 띠고있다. 그러나 수필에 대한 애독자들의 관심을 감안할 때 우리 서재들에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명목을 띤 그럴듯한 수필선집이 쟁겨져있지 못한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일주》를 하다싶이하면서 무려 23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작가, 시인, 평론가, 철학자들의 고전작품을 중심으로 삼고 그속에서 수필감으로 될만한 29편의 문장을 선택하여 옮겨놓았는데 대체로 명상록이나 철학적성찰에 속하는 수필, 기행문, 서간문, 서정산간, 잡문, 평론체의 수필들이다. 작품배열순서는 나라별과 주제별이 아니라 거의다 저자의 생년월일순서로 엮었다.

우리는 모쪼록 이 선집이 좋은 수필을 찾는 독자들에게나 수필을 쓰려는 사람들에게나 성실한 길



잡이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는바이다. 우리는 또 이
선집이 한창 성장기에 처한 광범위한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사상과 리념을 키울수 있는 덧거름과 촉매
물이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편자로부터



차 례

1/ 해연의 노래	고리끼
4/ 슬픔에 관하여	몽떼뉴
11/ 칭찬에 관하여	베이컨
14/ 로씨야의 숲과 초원	뚜르게네브
27/ 참새	뚜르게네브
29/ 비너스	로 땡
44/ 모자철학	가드너
51/ 풀베개	소우세끼
62/ 비를 맞으며	알 랭
66/ 바다	프루스트
69/ 경쟁	러 셸
86/ 대를 사랑하는 마음	규 긴
95/ 런꽃	주돈이
97/ 무지의 기쁨	린 드
107/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릴 케
115/ 자화상	아인슈타인
117/ 나무심는 사람 꺾타이 이야기	류종원



122/ 후세에 부치는 메시지
 124/ 가을밤
 129/ 그림자의 고별
 132/ 눈
 135/ 좋았던 지난 일
 139/ 개의 꾸지람
 141/ 죽은 뒤
 150/ 파리
 155/ 꿈의 공간
 164/ 달밤
 170/ 뒤모습
 176/ 제밀라의 바람

아인슈타인
 로 신
 로 신
 로 신
 로 신
 로 신
 로 신
 구양수
 바실라르
 주자청
 주자청
 까 뒤



해연의 노래

[구쏘련] 고리끼(1868-1936)

창망한 바다위에 바람이 흑운을 몰아온다. 흑운과 바다사이로 시꺼먼 번개인양 도고히 해연이 나래친다.

날개로 파도를 스치며, 화살같이 흑운우로 솟아오르며 해연은 웨친다-흑운은 해연의 용감한 웨침속에서 기쁨을 듣는다.

이 웨침은 폭풍우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되어있다! 이 웨침속에서 흑운은 분노의 힘, 정열의 불길, 승리의 신념을 듣는다.

갈매기들은 폭풍우를 앞두고 신음한다-바다우를 맴돌아치며 폭풍우에 대한 공포를 바다깊이 감추려 서둔다.

가가르도 신음한다-그들은 생활의 기쁨, 투쟁의 희열을 모른다. 우르릉거리는 우뢰소리에 질



접을 한다.

미련한 펄근새도 비둔한 몸뚱아리를 비겁하게
바위틈에 감춘다... 오직 도고한 해연만이 물거품
회꺾거리며 뒤번지는 바다우를 용감하게, 자유롭게
나래친다!

흑운은 더욱더 침침하게 바다우로 내리덮이고
파도는 소리높이 노래부르며 우뢰소리를 맞받아 하
늘높이 치솟는다.

우뢰소리 터진다. 파도는 분노의 비말속에서
노호하며 광풍과 맞다들어 싸운다. 보라, 광풍은
산더미같은 파도를 꼭 껴안아 외락 바위를 뚫다친
다. 순간 비취색의 산더미들은 비말을 날리며 물바
래로 부서진다.

시꺼먼 번개인양 해연은 웨치며 나래친다. 화
살같이 구름을 꿰뚫으며, 물거품을 가르며 나래친
다.

보라, 그는 신령마냥, 도고하고 시꺼먼 폭풍
우의, 신령마냥, 나래치며 웃으며 웨친다... 그는 흑
운을 조소하고 기쁨에 겨워 웨친다.

민감한 신령은 성난 우뢰소리에서 곤핍한 숨소
리를 들은지 오래다. 흑운이 태양을 막지 못함을



그는 확신한다—그렇다, 막지 못할것이다!

바람이 아우성친다... 우뢰소리 터진다...

밑창없는 바다위에 시꺼먼 구름떼들이 시퍼런 불길처럼 타오른다. 바다는 번개의 화살을 붙잡아 제 품속에 삼켜버린다. 번개불은 불뱀처럼 바다에서 꿈틀거리다가 사라진다.

—폭풍우다! 바야흐로 폭풍우가 터진다.

용감한 해연은 번개불을 가르며 노호하는 바다우를 내려치며 웨친다. 승리의 예언자는 웨친다!

—폭풍우여, 더욱더 세차게, 터져라!...



슬픔에 관하여

[프랑스] 몽테뉴(1533-1592. 수필가, 철학자)

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있는 사람가운데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슬픔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것처럼 이 슬픔에 류별나게 호기심을 가지고 존중하고있다. 그들은 그것으로 지혜며 덕성, 양심을 치장한다. 정말 어리석고 망측한 장식이다. 이딸리아사람들은 그럴사하게도 슬픔이라는 이 낱말을 악의라는 뜻으로 상용하였다. 왜냐 하면 이 슬픔은 언제나 해롭고 미치광이여서 그들이 말하는 현자들에게 그 감정을 금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페르샤왕 캄비세스에게 패하여 포로가 된 애굽왕 프삼메니투스는 자기 딸이 포로가 되어 노예복을 입은채 물을 길어



오기 위해 그의 앞을 지나가는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모두 울부짖는데도 땅바닥을 응시하고 말없이 꼼짝하지 않았다. 그뿐이면 몰라도 그는 자기 아들이 또다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하중의 하나가 포로들속에 섞이여 끌려가는것을 보고는 머리를 감싸쥐고 대성통곡하더라는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근자에 와서 우리 나라 황태자중의 한분에게서도 볼수 있을것 같다. 이 황태자는 트리엔트에 있을 때 자기 집안의 기둥이요 영광인 만형의 부음을 듣고, 이어 곧 제2의 희망이던 동생의 부고를 받고도 이 두개의 충격을 모범적이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버티어나갔지만 며칠후 그의 신하 한사람이 죽으니까 이 마지막 충격에 그만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렸던것이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마지막 타격에 비로소 마음의 상처를 받은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실인즉 깊은 슬픔에 젖어있던터에 충격이 덮쳐오자 그만 그의 참을성의 한계가 무너져 버린것이다. 만일 이 이야기에 다음 이야기를 첨가



하지 않아도 똑같은 판단이 내려졌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캄비세스가 프삼메니투스에게 어쩌서 자기 아들딸의 불행에는 마음이 격하지 않고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느냐고 묻는 말에 프삼메니투스는 《친구의 불행은 눈물로 마음이 표현되지만 전자의 두 경우는 마음속을 표현할 모든 한계를 넘었기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다는것이다.

어쩌면 저 고대화가의 착상도 이러한 경우와 비슷할수도 있다. 그 화가는 이피게네이아가 희생되는 장면에 참석한 인물들의 슬퍼하는 표정을 이적없는 아름다운 소녀의 죽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그의 예술의 극치를 다하여 그렸지만 그 소녀의 아버지를 그리는 마당에서는 모든 기교를 이미 다 탕진하였기때문에 단지 얼굴을 가리고있는 모습밖에 그릴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 이상의 슬픔을 표현할 길이 도저히 없음을 말해주는것 같았다. 바로 이런 리유로 시인들은 저가련한 어머니 니오베가 아들 일곱을 잃고 또한 계속 딸 일곱을 다시 잃었을 때 그 가혹한 참변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그 모습이 바위로 변해버린것이라 생각한것이다.



그녀는 슬픔때문에 화석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에 압도당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멍청하니 말문이 막히고, 귀가 멍멍하도록 냇을 잃게, 될 때의 심정을 묘사한것이다.

진실로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사람의 혼백은 몽땅 뒤엎어지고 그 기능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몹시 불길한 소식을 듣고 놀랐을 때 몸이 얼어붙고 모든 동작이 오그라들었다가 눈물과 통곡을 토해내면 설음이 단번에 터져나와 묶였던 마음과 몸이 풀려 편해지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드디어 슬픔이 겨우 울음에 길을 열어준다.

페르디난트왕이 헝그리아왕 요하네스의 미망인을 토벌하려고 부다페슈트교외에 전쟁판을 벌렸을 때의 이야기이다. 독일군의 대장 라이샤크는 어느 기사의 시체가 실려오는것을 보았다. 이 기사가 전투에서 아주 용감했던것을 보았기에 그는 이 기



사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대장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누구인지 알고싶어 그의 갑옷과 투구를 벗겨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울부짖는데도 대장자신은 소리도 눈물도 없이 서서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응시하다가 마침내는 충격이 너무나도 큰데서 그의 전신이 뿔뿔이 굳어진채 땅에 쓰러지며 그대로 죽어버렸다.

속타는 정도를 말할수 있는자는 미지근하게 속 태우는자이다.

런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참을수 없는 사랑의 불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려 한다.

가엾은 신세로다! 사랑은 내 감각마저 빼앗아 버렸다.

그대를 한번 보자, 레스비아여! 나는 얼이 빠져 그대에게 할 말도 나오지 않는다.

혀는 굳으며 미묘한 불길이 사지에 뻗는다.

내부의 명동으로 귀는 울리며 이중의 암야로

